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때를 지키는 자>는 ‘때’를 지키는데 신경을 쓰니, ‘때’를 놓치지 않고 한다. 대신, 재촉하고 뛰어야 ‘때’를 지킬 수 있다.
2. <때>를 지키면, 쉽게 잘 된다. 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때>를 못 지키니 힘든 것이다. 마치 <차>를 타고 갈 것인데 걸어가니 힘들고, 또 <같이 할 것>인데 같이 못 하고 혼자 하니 힘든 것과 같다.
3.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지키는 것이 힘드니, “이렇게 까지 살아야 되나? 때를 안 지켜도 그냥 사는 대로 살았는데...” 한다. <하나님의 때>를 안 지키고 ‘자기 때’만 지켜도 살기는 산다. 고로 나름대로 얻을 것을 얻고 살기는 하나, 그것은 ‘육적 세계의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야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 - 이를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한다.
4. <때>를 지키니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때>를 지키면, ‘자기 주권’을 더 행세할 수 있다.
5. <때>를 지키니, ‘때’라는 힘에 이끌리어 힘들지 않게 하게 된다. 그리고 <때를 지키려는 목적>에 힘내서, 서둘러서 하게 된다.
6. <때를 지키는 맛>으로 뛰고 달려야 된다.

7. <제때>를 못 맞춰서 ‘1초’ 늦으면, 1000년을 해도 안 된다.
영영 안 되고 끝난다.
8. <앞의 때>에 할 것을 못 하면, ‘뒤의 것’ 이 제대로 안 된다.
<주춧돌>을 놓고 그다음에 ‘기둥’ 을 세워야 하는데, <때>를 못 지켜서 <주춧돌>을 못 놓으면, 그냥 땅바닥에 ‘기둥’ 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안 된다.
9. 계속 <때>를 지켜 하면, 그다음 것도 척척 이루어진다. 그러함을 깨닫고 ‘때’ 를 지켜라.
10. 가끔 <때>를 지키면, 마치 ‘가끔 때를 미는 것’ 과 같고, ‘한 달에 한 번 이를 닦는 것’ 과 같다. 가끔 때를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11. <때>도 ‘A급 때’ 가 있고, ‘B급 때’ 가 있고, ‘C급 때’ 가 있다.□는 ‘제때를 지켜 행하는 것’ 이다.□는 ‘제때가 지난 다음에 늦게 해서 복직하는 것’ 이다.□는 ‘겨우 하기는 하나, 혼자 하는 것’ 이다.
12. 하나님은 항상 ‘제때’ 하신다. <100명>이 오면 ‘100명’ 을 데리고 하시고, <1명>이 오면 ‘1명’ 을 데리고 해 버리신다. 그래서 말씀에도 “<역사>가 시작되면, 10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따라오는 사람>만 가지고 한다.” 했다. <1명>이어도, 하나님은 ‘때’ 가 되면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을 이루신다.

13. <예수님 때>도 ‘메시아를 알아보는 자’ 가 얼마 안 됐다. 아주 소수였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역사를 펴 가셨다.

14. 하나님은 <최종적인 것>은 ‘1명’ 만 알면 그 하나를 가지고 역사를 끌고 가신다. 한번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안 믿어줘서 큰 일 났다고 했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하나만 믿어 주면, 하나 가지고 역사를 계속 펴간다. 왜? 하루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계속 역사를 펴 가면, 사람들이 따라온다.” 하셨다. 고로 그 말씀대로 지금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 역사를 따르고 있다.

15. 가령 잔치를 하는데, 음식을 잔뜩 준비해 왔다 하자. 300인분을 준비해 왔는데, 100명밖에 안 왔다고 해서 잔치를 안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잔치의 핵심>은 ‘신랑과 신부’ 다. 고로 아무도 안 왔어도 ‘신랑과 신부’ 가 왔으면 둘만 잔치하는 것이다. 이같이 <섭리역사가 시작될 때>도 그러했다. <메시아> 하나만 하나님께 딱 붙어서 일체 되면, 하나님은 “가자!” 하고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 가지고 역사하셨고, <노아 때>는 ‘노아’ 한 사람 가지고 역사하셨고, <요셉 때>는 ‘요셉’ 한 사람 가지고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그 하나로 역사를 펴시며 지구촌에 해야 할 일들을 해 오셨다.

16. 하나님은 ‘때’ 가 되면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이 가르쳐 놓고,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은 한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아담과 하와〉도 그러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을 버리고 타락하니, 하나님은 “제 갈 길 가는구나.” 끝내버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니, ‘영원한 형벌’로 돌아가게 됐다.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17. 하나님은 항상 ‘제때’ 행하신다. 고로 하나님과 같이 하면, 쉽게 이상적으로 하게 된다.

18. 〈성령님〉이 ‘제때’ 감동을 주신다.

19.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강림하시어 역사를 펴시고, ‘성자’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어 깨닫게 하신다.

20.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즉시 일어나서 행하여라.

21. 그때 그 일을 행하여라.

22. 〈봄〉이 오면 ‘따뜻함’을 느끼듯, 〈때〉가 오면 ‘때’를 느낀다.

23. 〈때〉에 대해서 신경 써야 ‘때’를 맞을 수 있다. 늘 신경 써야 된다. 신경을 안 쓰면, ‘때’가 와도 모르고, ‘때’가 가도 모른다.

24. <때> 놓치면 죽는다.<때> 잊으면 죽는다.

25. <힘든 것>도 제때 해야 해진다.

26. 힘들어도 ‘제때’ 하기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방법을 달리 해서라도 그때 해야 된다.

27. <제때>를 놓치면, 인생 눈보라 치고, 비바람 불고, 다른 주관권으로 넘어가 버린다.

28.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날, 그때’ 잔치를 하기로 했으면 ‘그날, 그때’ 해야 된다. ‘좋은 날에 해야지.’ 하지 말고, <때>가 왔으면 하는 것이다. <섬리사>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창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랑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환난이 일어나지?’ 했다. 제때를 놓치면, 이미 신랑 신부는 잔치를 끝내고 여행을 떠나버린 후다. 고로 눈보라가 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제때’를 놓치지 말고 하라는 것이다.

29. <무덤기간 때>가 있고, <부활기 때>가 있다.

30. 살아나야 얻을 수 있다. <육적>으로 살아나면, ‘육신에 해당되는 것’을 얻을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나면 ‘영적인 것’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서 여러 가지로 살아나는 대로 얻을 것이다. 고로 <부활기 때>에 무조건 살아나라.

31. <때>에 대해서도 부활되도록 하여라.
32. <무덤기간 때>는 ‘사탄이 주관하는 때’라서 ‘사탄 세계’로 넘어간다. <무덤기간>이 끝나면, ‘부활의 때’가 온다.
33. <부활기 때>는 ‘자기가 활동하는 때’다.
34. <때>는 이미 와서 서 있는데, 왜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때>를 계산할 줄 알아라. <구약 4000년이 끝났을 때>는 ‘메시아’가 땅에 왔다. <신약 2000년>이 끝났을 때도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때>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35. <때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때’를 놓치지 않고 잡는다.
36. 뛰고 달려야 ‘때’와 동행한다.
37. <때>를 다스려라. <때>는 ‘지켜야’ 다스릴 수 있다.
38. <때>를 기도하며 잡아라.
39. <때>를 지키면서, 때를 다스려라. 때에 대해 신경 써야 다스린다.

◎ 말씀 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